

## 동서 교류 역사 자료를 활용한 역사 수업

장윤희\*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 Research on the utilizing the history materials of east-west exchanges in history class

Yun Hye Ja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know how to utilize foreigners such as Weltevree and Hamel who visited Korea in the pre-modern period, during history class. Both Weltevree and Hamel were Dutch men, and the first person who visited the Joseon Dynasty was Weltevree. He was a sailor of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landed on Jeju Island in 1627, and since then, he did not return to his country. He played a major role in the execution of weapons. Hammel, the merchant catcher of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traveled to Joseon in 1653 and contacted several kinds of people in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for 13 years, and was able to survey the scenery and customs of Joseon. It can be difficult for students to understand the overall trends of the world history and the views of the East and the West because students learn from Western history, East Asian history, and Korean history, separately. Learning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East-West exchanges will enable students to understand the Western and Eastern history of the West, and understand the history of the world.

**Key words** : Weltevree, Hammel, history class, east-west exchanges, students

## I. 서론

세계화, 지구촌 등의 말이 익숙해진 지금도 타국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다른 나라의 모습에 대해 나오는 TV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동영상 등이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이를 역

사교육에 이용하여 국가 간 교섭 및 교류에 관련된 주제로 역사를 학습할 시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동서교류와 관련한 인물들 중 근대의 인물들처럼 많이 알려진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들에 대해 배우며 당시의 세계정세를 보다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근대 이후는 제외하고 전근대로 시대를 잡아 보았다.

또, 교류사 학습은 세계사의 종합적인 이해에도 도움을 준다. 학생들은 서양사와 동아시아사, 한국사를 구분해서 배우기 때문에 세계 역사의 종합적인 흐름이나 시대별 서양과 동양의 모습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힘들 수 있다. 전근대 동서교류의 상을 살펴보면 서양과 동양의 역사를 세계 역사의 흐름 안에서 같이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서술했듯 전근대 동서교류와 관련된 인물들 중 한국사 속의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 이후는 우리 역사에서 서양과의 접촉이 매우 빈번하고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내용을 학습한 터라 흥미를 끌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가 있는 상황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설화 속 인물로 당시 신라에 들어와 활동했던 서역인으로 추정되는 처용, 인도 등지를 기행하고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한 혜초, 도당유학생으로 빈공과에 장원급제했던 최치원, 조선에 들어온 최초의 서양인 선교사 세스페데스 신부, 청에 불모로 잡혀가 서양의 문물들을 많이 배웠던 소현세자, 조선에 귀화한 최초의 서양인 벨테브레(박연), 약 13년간 조선에 표착했던 하멜 등 전근대의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전근대 동서교류에 관한 내용은 현 교과서에서 무역, 교역 관련한 부분에서만 쓰이고 있는 실정이고 인물에 관련한 내용은 더욱 소략하다.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당시 교류의 모습뿐 아니라 다른 사실들도 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교과서에 생략되어 있거나 자세히 다루지 않는 부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심화 자료로서도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한다.

## II. 본문

### 1. 처용

처용은 동해 용의 아들로 신라 왕정을 보좌하다가 아내를 범한 역신(疫神)을 물리치고 문신(門神)이 된 설화 속 인물이다.

서울 밝은 달밤에 / 밤늦도록 놀고 지내다가 / 들어와 자리를 보니 / 다리가 넷이로구나.  
/ 둘은 내 것이지만 / 둘은 누구의 것인가? / 본디 내 것(아내)이다만 / 빼앗긴 것을 어찌 하리.

위 내용은 《삼국유사》에 기록된 처용이 불렀다는 노래이다. 처용이 밤늦도록 놀다가 집에 들어가 보니 웬 다른 남자가 아내와 동침을 하고 있었다. 처용은 화를 내기보다는 위와 같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 후 물러 나왔다. 그러자 아내를 범하던 자가 그의 대범함에 감동하여 그 본모습인 역신으로 나타나 처용 앞에 무릎을 꿇고 처용의 형상이 있는 곳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사람들은 처용의 얼굴을 대문 앞에 그려 역신의 방문을 피했다고 한다.

역신이란 전염병을 의미한다. 이 처용설화로 인해 민간에서는 처용의 얼굴을 문에 그려 붙여 병을 피하고자 하였고, 짚으로 처용 인형을 만들어 길에 버려 액을 막았다. 궁중에서는 선달그믐날 처용의 얼굴을 한 탈을 쓰고 처용무를 추는 나례(儺禮, 음력 선달그믐 밤에 궁중·민가 등에서 악귀를 쫓기 위해 행하던 의식)를 행함으로써 나쁜 기운을 막고 전염병을 쫓고자 하였다. 관아에서도 매년 처용 탈을 쓰고 처용무를 추는 것을 의례로 하였다.

처용무는 처용의 이야기가 전해오던 신라 말부터 조선까지 꾸준히 이어져온 우리나라 전통 춤이다. 처용탈의 생김새는 《악학궤범》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비교적 충분하게 그 원형이 보존되어 있다. 처용 탈은 얼굴의 생김에서 다른 가면과 비교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다소 험상궂은 인상이며 얼굴색은 붉은색으로 정해져 있다. 성현(成俔, 1439~1504)의 《용재총화》에도 처용 탈의 얼굴이 붉고 이가 희다는 기록이 있어 처용탈의 피부색은 붉은색으로 줄곧 만들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처용은 그 생김이 상당히 특이했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삼국유사》에서 처용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어느 날 대왕이 개운포(開雲浦, 지금의 울주)에서 놀다가 돌아가려 하였다. 낮에 물가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길을 잃고 말았다. 왕이 괴이하게 여겨 신하들에게 물으니 일관(日官)이 아뢰었다.

“동해(東海) 용의 조화입니다. 마땅히 좋은 일을 해주어 풀어야 할 듯합니다.”

그래서 왕은 일을 맡은 관원에게 명하여 용을 위해 절을 세우도록 하였다. 왕이 명령을 내리자 구름과 안개가 걷혔기 때문에 그곳을 개운포라 불렀다.

동해의 용이 기뻐하며 일곱 아들을 거느리고 왕 앞에 나타나 덕(德)을 찬양하며 춤을 추고 음악을 연주하였다. 그 중 한 아들이 왕을 따라 서울로 들어와 정사를 도우니, 이름은 처용(處容)이라 하였다. 왕은 아름다운 여자로 처용의 아내를 삼아 머물도록 하고, 급간(級干) 관직도 주었다.

- 《삼국유사》 권2 처용랑망해사(處容郎望海寺) 편

신라 제49대 왕인 헌강왕(憲康王) 때였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헌강왕 때 신라는 경주에 있는 모든 집에서 나무 대신 솥을 때서 밥을 지을 정도로 사치와 풍요의 정점을 찍은 시기였다. 기록에 의하면 헌강왕은 불교와 국학에 관심이 있었던 임금이었고 상당히 풍류를 즐겼던 것 같다. 왕의 행차 때마다 각 지역의 신이 왕에게 춤을 선보였다는 것으로 보아, 그는 춤과 노래도 꽤 좋아했을 것이다.

이러한 현강왕의 동해 행차 때 왕에게 노래와 춤을 선보인 처용과 그의 가족은 신임을 얻는다. 현강왕은 처용이 나타났을 때 절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지켜 망해사(望海寺)를 지었다. 처용은 왕을 따라 경주로 와서 정착해 아내와 벼슬을 얻었다. 이때 그가 얻은 아내가 절세미인이라 역신이 그의 아내를 넘보았던 것이다.

처용이 노래와 춤을 잘하고 용의 아들을 자처하며 역신을 내쫓았다는 것으로 보아, 처용은 무속적 성격이 있는 인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왕은 처용에게 아내와 벼슬까지 주면서 곁에 두고 왕실의 안녕과 병마를 내쫓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에서는 처용이 용의 아들이라 하였지만, 처용의 신분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분분하다. 당시 울산에 있던 호족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당시 신라에 왕래하던 아라비아 상인일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처용 탈의 이국적인 생김과 《고려사》 악지에 기술된 처용의 모습을 볼 때 그가 외국인일 가능성은 꽤 큰 것으로 보인다.

신라 현강왕이 학성에 갔다가 개운포로 돌아왔을 때, 홀연히 한 사람이 기이한 몸짓과 괴이한 복색을 하고 임금 앞에 나아가더니, 노래와 춤으로 덕을 찬미하고 임금을 따라 서울로 들어갔다. 그는 자기를 처용이라 불렀으며 언제나 달밤이면 시중에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었으나, 끝내 그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였다. 당시 그를 신인이라 생각하였다. 후세 사람들이 그 일을 기이하게 여겨, 이 노래를 지었다 - 《고려사》 권 제71, 36장

기이한 몸짓과 괴이한 복색을 보고, 그가 신라인이 아니라 외국에서 온 사람일 거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실제로 현강왕 때 동해의 울주 지역은 변화한 항구였고 《삼국사기》에 현강왕 때 보로국(寶露國, 여진)과 흑수국(黑水國, 말갈) 사람들이 신라와 통교를 청하기도 하였고, 당나라 및 일본과의 교섭을 꾀하기도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시기 신라와 타국 간 국제적인 교류가 꽤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처용을 두고 무역을 하러 온 아라비아의 상인이라 추측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최근 흥미로운 학술적 발견으로 처용의 출신을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고대 페르시아의 서사시 《쿠쉬나메》에 신라 관련 기록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쿠쉬나메》는 ‘쿠쉬의 책’이라는 의미이며 ‘쿠쉬’는 이 서사시의 주인공이자 영웅이다. 이 서사시는 7세기 중엽 멸망한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유민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지도자인 아비틴이 유민들을 이끌고 신라로 와 정착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이 이야기에서 아비틴은 신라왕의 환대를 받았고 신라 공주 프라랑과 결혼하였으며 둘 사이에 태어난 왕자 파리둔이 후일 아랍 군을 물리쳐 조상의 원수를 갚는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처용설화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쿠쉬나메》는 11세기경부터 구전되다가 14세기에 필사되었으며, 원본은 영국에 소장되어 있다. 이란에서는 1998년 이 책의 인쇄본이 출간되면서 본격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쿠쉬나메》에서 영웅 아비틴이 신라에 온 시기가 현강왕 무렵이라 하였고 《삼국사기》에도 현강왕 때 기이한 차림의 사람들이 나타난 기록이 있다.

5년 3월에 왕은 나라의 동쪽 지방의 주·군에 행차하였다. 이때 알지 못하는 사람 4명이 어전에 나타나서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모양이 괴이하고 의관도 다르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산해(山海)의 정령’이라 하였다.

- 《삼국사기》 권 11 헌강왕 편

즉 처용은 아비틴이나 아비틴을 따라온 유민 중 한 사람일 수 있다. 물론 《구שו나메》가 정통 역사서가 아니며 구전된 것이라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페르시아에서 신라를 인지하고 그에 관한 이야기가 남아 있다는 것은 흥미롭고 중요한 일인 것은 분명하다. 더불어 신라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페르시아 산으로 보이는 부장품들도 이러한 국제적 교류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완전한 번역작업이 이루어져 신라와 페르시아 간 관계가 밝혀지면 처용이라 추측되는 인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어쩌면 처용의 출신도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서술은 교과서<sup>1)</sup>와 다양한 자료로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다.

“신라를 방문한 여행자는 누구나 정착해 다시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곳은 매우 풍족하고 이로운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개나 원숭이의 목줄도 금으로 만든다.”

- 중세 이슬람 학자 알 이드리시, “지리학 총서”(1154)

다소 과장되었지만 신라에 대한 호감이 듬뿍 묻어난다. 다른 이슬람 문헌에서도 신라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풍요로움을 찬탄한 경우가 많다. ‘병에 걸린 사람도 신라에 가면 곧 완치된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다. 이슬람의 문헌에 신라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신라는 통일 전부터 이미 서역과 교류하고 있었다. 통일 후 변영을 누리던 8~9세기 무렵에는 비단길과 바닷길을 통한 교역이 더욱 늘어났다. 이에 페르시아 산 에메랄드인 슬슬, 인도·동남아시아 산 원목인 자단과沉香, 각종 향료 등 이색적인 물품이 신라에 들어왔다. 이때 드나들었던 이슬람 상인의 입소문을 통해 신라가 전해지게 된 것이다.

역사 수업에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탐구 학습을 이용할 수 있다.

★ 탐구 과제

- 연극을 통해 처용설화의 내용을 학습해 보자.

(학생들의 흥미를 살리면서도 처용 탈을 만들어 쓰도록 하는 등 처용설화의 내용과 최대한 비슷하게 극을 구성하도록 지도한다.)

1) 고등학교 한국사(미래엔)

대단원 : I. 우리 역사의 형성과 고대 국가의 발전

중단원 : 4. 경제 활동과 사회 모습

소단원 : 02. 남북국의 경제

당, 일본과 무역도 활발해져서 공무역과 사무역이 성행하였다. 경주에서 가까운 국제무역항인 울산에는 이슬람 상인도 왕래하였다.

## 2. 안 안스 벨테브레(박연)

벨테브레는 조선에 귀화한 최초의 서양(네덜란드)인으로, 일본으로 가던 중 제주도에 상륙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이후 조선에 귀화하였고 여생을 마쳤다.

벨테브레는 1627년(인조 5) 동료 두 명과 함께 제주도에 도착했다.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 소속으로 홀란디아 호에서 선원으로 일하다가 1627년 우베르케르크 호로 일본을 향하던 중 제주도에 표착한 것이다. 그는 동료인 드리크 하이스베르츠, 안 피터스 베르바스트와 함께 식수를 구하기 위해 상륙했다가 관헌에게 붙잡혀 서울로 호송되었다.

이 선박의 정확한 운행 목적은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당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선박 운행 사례들로 보아, 우베르케르크 호 역시 일본과 네덜란드 간 국제무역을 위해 운항하다가 표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박기현: 2008)

조선 관료들은 이들을 왜인으로 착각하여 왜관으로 보냈고, 왜관에서는 왜인이 아니라고 받지 않았다. 『접왜사목초록』에 보면 “문위 역관 김근행이 와서 말했다. 최근 부산의 연로한 이들의 말을 들었는데 정유년 연간에 남만선이 있었다. 경주에 표착하여 3명을 붙잡아 왜관에 들여보냈으나 왜관의 왜인 등은 일본의 표류인이 아니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만인이라고 하는 이들은 부산에 머물렀는데 4-5년이 지나서 조정의 분부에 따라 상경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의 경주는 제주와 혼동한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정묘호란으로 어수선하였던 조선 정부는 중국으로 보낼 형편이 되지 못하자 그들을 체류하도록 했다. 벨테브레는 대포를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으로 송환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벨테브레 일행은 훈련도감에서 근무하였는데, 병자호란 때 모두 출전하여 벨테브레를 제외한 두 사람은 이국 땅에서 전사하고 말았다.

조선에 표착한 이후 벨테브레는 이름을 박연으로 바꾼 후 조선인으로 귀화해 조선에 귀화한 최초의 서양인이 되었다. 당시 조선의 귀화 정책은 여진족에 대한 포섭 및 격려, 결혼정책, 강제 이주, 인질 등으로 주로 북방의 경계를 지켜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박연은 남만인(네덜란드인)으로 전례 없는 일이었기에 당연히 임금에게까지 보고되었을 확률이 높다. 박연은 조선 조정이 승인하고 결혼까지 시켜주었을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 본 인물이었던 것이다.

박연은 조선에서 뛰어난 실력에 여러 모로 인정을 받고 있었으며, 무과에 급제하기도 하였다.<sup>2)</sup> 조선은 박연을 훈련도감에 배속시켜, 투항해 온 왜인들과 중국인들을 거느리게 했다. 이는 조선이 외국인이나 귀화인으로 구성된 용병 부대를 훈련도감 안에 두었다는 이야기이다. 박연은 자신의 무기 제작 경험과 실전 참가 경험, 그리고 무관으로써의 리더십으로 부대를 통솔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박연은 조선에 완전히 정착하여 조정의 정식 관료가 되었던 것이다.

2) “정시(庭試)를 시행하여 문과에 이정기 등 9인을, 무과에 박연 등 94인을 뽑았다.”(1648년 8월 25일, 인조실록)

병자호란으로 인해 풍전등화의 신세였던 조선은 서양의 화포를 사용해본 적이 있는 네덜란드인들을 곧바로 전장에 투입하게 되었다. 박연이 주목받은 것은 이때부터였다. 전쟁 중에 보여준 그의 활약과 조선에 대한 그의 충성을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청은 조선으로 하여금 군사기술개발과 무기재료 유출을 엄격히 금하고 무력을 키워 대항할까 조선을 계속 감시하였고, 효종은 국가적 차원으로 북벌정책을 추진하였다.

당시 조선이 보유한 천자총통(天字銃筒)은 가장 큰 것이 평균 길이 1.3m, 무게 700근, 사거리 900보였는데, 청군이 보유한 홍이포(紅夷砲)는 서양에서 들여온 것으로 길이 2m, 무게 3,000근, 사거리 4-8km에 달하였다. 전쟁의 직접적 패인이 대포라고 생각하였던 조선은 서양 무기에 대해 잘 아는 사람 및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다. 당시 조선에는 벨테브레가 꼭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훈련도감에 소속되어있던 박연은 각종 화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그것이 그의 임무였다. 그는 포로가 된 왜인들을 통솔하고, 명나라에서 들여온 홍이포의 제조·조작법을 지도했다. 인조는 그가 구인후 대장 밑에서 일하게 해주었는데, 조선의 무기개발, 훈련 등을 총괄하는 훈련도감의 관료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구인후 밑에서 인정을 받았던지 후일 조정의 중심 관료로 올라서게 되었다.

이처럼 박연은 조선의 병기 개발 및 개량에 커다란 역할을 하면서 조선인으로 변모해갔으나, 북벌의 쇠퇴로 점차 그의 효용이 줄어들었다.

박연은 하멜 일행이 제주도에 표착하였을 때 통역을 위해 제주도로 내려갔다. 박연은 “일본이 시장을 연 곳은 나가사키뿐이다. 그러나 교역은 이전과 달라서 타국의 상선이 하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자국인도 타국에 왕래하고자 하면 반드시 죽인다. 하물며 너희 같은 타국인은 당연하다. 차라리 나와 같이 상경하여 도감 포수로 들어오는 것만 못할 것이다. (그러면) 옷과 먹을 것을 넉넉히 주고 신변이 무사할 것이다.”라며 하멜 일행에게 일러주었다. 박연은 이들을 데리고 육지로 가 호남의 병수영에 안주하도록 해주었다. 그는 하멜 일행이 조선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으나 이들의 마음을 끝까지 돌려놓지는 못했다.

박연은 도감군오(都監軍伍)에 소속된 하멜을 감독하고, 조선의 풍속을 가르쳤다. 아마도 박연은 하멜이 자신과 같이 조선에 귀화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에 머물기를 원하기도 했고, 조선의 대우에 어느 정도 만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연은 자신들을 풀어주면 일본과 자주 왕래하는 네덜란드 선박에 올라 당신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하멜 일행의 솔깃한 제안을 거절하고 조선에 정착하기를 권했던 것이다.

박연은 표착한 외국인 문제를 직접 보고하고 처리할 만큼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하멜 일행의 처리에 있어 모국인의 입장보다는 조선의 관리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하멜 일행이 탈출을 꾀할까 걱정하여 각자 분산시키고 보증인을 세워 지키도록 하였다. 조선 조정은 도감군오에 하멜 일행을 배치한 후 기예를 교습시키며 보증인을 찾은 것까지 박연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박연에 대한 조선 정부의 신뢰와 당시 박연의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조선에서 인정받고 있는 귀화인이자 고위 관료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교과서 서술을 살펴보고 탐구 과제를 이용해서 역사수업을 실시해보도록 한다.

☆ 관련 교과서 서술

고등학교 세계사(천재교육)

대단원 : V. 지역 세계의 팽창과 세계적 교역망의 형성

중단원 : 1. 동아시아 사회의 발전과 한계

소단원 : 04. 동아시아의 나라들

에도 시대에 서양과 교류를 할 수 있었던 창구는 나가사키였다. 이곳에 상주하였던 네덜란드 인이 일본인에게 서양의 학문과 지식을 전수하였는데, 이를 난학이라고 한다. 난학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여러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네덜란드 어로 된 해부학 서적을 일본어로 번역한 “가이타이신쇼(해체신서)”가 그 중 하나이다.

☆ 관련 교과서 서술

고등학교 세계사(비상교육)

대단원 : IV. 지역 세계의 통합과 세계적 교역망

중단원 : 1. 동아시아 세계의 변화와 교역

소단원 : 04. 동아시아의 국제 교역과 문화 교류

한편, 유럽 상인들도 교역을 위해 일본을 찾았다.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는 일본에 조총이나 중국 물품을 팔고, 일본의 은을 받아 중국에서 유럽이 필요로 하는 비단, 도자기 등을 구입하여 돌아갔다.

서양 상인과 더불어 선교사들이 일본에 들어와 크리스티교를 전파하자, 이를 위협하다고 판단한 에도 막부는 해금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나가사키 한 곳만을 열고 중국, 조선, 류큐와 통상을 하면서 서양 상인 가운데에는 네덜란드 상인에게만 무역을 허락하였다. 네덜란드 상인이 왕래하면서 일본에 서양의 학문과 기술이 유입되었는데, 이를 난학이라고 한다. 일본은 난학을 통해 새로운 서구 학문을 접하며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 탐구 과제

-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을까? 박연과 하멜은 어땠을까?

(모범답안: 조선의 지식인들은 박연과 하멜 일행을 모두 남만인(南蠻人)이라 생각했고 네덜란드 출신임을 알지 못했다. 1666년(현종 7) 10월, 일본은 조선 정부가 하멜 일행을 억류한 사실을 항의해왔는데, 이를 통해 하멜이 네덜란드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됨. 일본은 아란타(당시 네덜란드는 화란(和蘭)이나 아란타(阿蘭陀 : 일본어 발음으로는 오란다)로 표기했다.)는 일본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군(屬郡)이므로 조선이 압수한 물품은 돌려주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폈고, 이에 대해 조선은 “그들의 복장이 일본과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아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없는데,

무슨 근거로 일본으로 보내겠는가? 파손된 배와 물건은 표류한 사람들에게 각자 알아서 처리하게 했다.”고 답함. 일본의 항의를 계기로 조선의 지식인은 일본과 무역하는 나라 가운데 아란타국이 있으며, 박연과 하멜은 아란타국에서 온 사람임을 확인. 『하멜표류기』를 통해 당시 하멜은 일본이 조선과 네덜란드의 교역을 중계 하면서 중간 이익을 챙기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17세기 조선의 지식인들은 일본과 아란타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일본의 남쪽에 아란타라는 나라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

### 3. 헨드릭 하멜

하멜의 경우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 역동적으로 인물의 활동을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아래와 같이 연표를 만들어 보게 하는 탐구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b>● 하멜 연표</b>	
1630.	호르쿰에서 아버지 Dirck Hamel과 어머니 G. Verhaer 사이에서 태어남.
1650. 11. 6.	텍셀(네덜란드 북부에 있는 섬)의 Landdiep에서 인도로 가는 Vogel Struijs 호에 사격수로서 승선.
1651. 7. 4.	바타비아 항에 도착. 인도에서 하멜은 빠르게 승진. 서기에 이어 보좌관이 되고 곧 장부 계원이 되어 선박의 항해 유지와 재무 관리는 물론 재정을 맡아 봄.
1653. 7. 18.	장부 계원으로서 스페르베르 호에 승선해 바타비아를 떠남. 조선에 표류.
1666. 9. 4.	조선에서 탈출
1666. 9. 6.	일본 히라도 도착.
1668. 7. 20.	하멜 일행은 네덜란드로 귀국. 하멜은 인도에 남아 있다가 1년 후, 두 번째 생존자들과 함께 귀국.
1670. 8.	하멜은 두 번째 생존자들 중 2명과 함께 조선에 감금되어 있는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지불을 요구.
1692. 2. 12.	사망(이때까지 미혼이었음.)

하멜이 처음 조선에서 체류했던 표류기를 써서 유럽에서 발표했던 것은 1669년이였다. 당시 하멜은 네덜란드에서 《스페르웨르 호의 불행한 항해 표류기(Journal van de Ongeluckige Voyage van't Jacht de Sperwer)》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이와 동시에 책은 유명세를 타 여러 번 재판을 거듭하였고, 18세기 초 영어·독일어·프랑스어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이후 1920년 회팅크(B. Hoetink)가 헤이그의 기록 보관소에 있는 사본을 이용하여 원본의 번역판을 발행함으로써 오늘날 하멜 표류기의 정본이 되었다.

하멜은 13년 동안 조선에서 감금·군역·태형·유형·구걸 등을 겪으면서 여러 계층의 사람들

을 만났고, 여러 지역으로 끌려 다니면서 조선의 풍물과 풍속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의 기록은 꽤 정교하고 신빙성 있는 기록으로 간주되고 있다.

10월 29일 오후에 서기와 일등항해사 그리고 하급선의가 제주목사에게 불러갔다. 그곳에 가 보니 긴 붉은 수염을 한 어떤 사람이 있었다. 목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 와서 우린 ‘우리과 같은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대답했더니 총독이 웃으며 우리에게 그는 조선 사람이라고 손짓 발짓으로 설명해 주었다. 많은 이야기와 손짓 발짓을 주고받은 끝에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 사람은 우리말로 떠듬떠듬 우린 ‘어떤 사람’이며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다. 우린 그에게 ‘암스테르담에서 온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또 ‘어디에서 출발하여 어디로 가는 길’이었느냐고 물어서, ‘타이완에서 출발하여 일본으로 가던 중 전능하신 하나님이 길을 막아 폭풍우에 5일 동안이나 갇혀 있다가 이 섬까지 표류하게 되어 지금은 자비로운 조처만 바라고 있다.’고 대답했다.

우리 쪽에서 그에게 그의 이름과 국적,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나의 이름은 얀 얀스 벨테브레이고 드 레이프 출신이며, 1626년 홀란디아 호를 타고 고국을 떠났으며, 1627년 오버커크 호를 타고 일본으로 가던 중, 조선 해안 근처에서 역풍을 만나 식수가 부족해서 보트로 육지까지 왔다가 우리들 중 세 사람만이 주민에게 잡혔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트를 타고 도망쳐 배까지 가 버렸다.’고 대답했다. 그에게 어디서 살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이 섬에 왔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자기가 ‘서울에 살고 있고 왕으로부터 적당한 식량과 의복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곳에 보내진 이유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그는 또 덧붙여서 여러 차례 왕과 관리들에게 일본으로 보내 달라고 청원했지만, 왕은 항상 ‘당신이 새라면 그곳으로 날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외국인을 나라 밖으로 보내지 않는다. 당신을 보호해 주겠으며 적당한 식량과 의복을 제공해 줄 테니 이 나라에서 여생을 마치라.’고 대답하면서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를 위로하면서 만약 우리가 왕을 만나고 사정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래서 통역을 만나서 기뻐던 마음이 곧 슬픔으로 바뀌고 말았다. 그는 약 57, 8세로 보였는데 놀랍게도 모국어를 거의 잊고 있어서 아까도 말했듯이 처음에는 그의 말을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으나, 약 한 달 정도 같이 지내다 보니 그가 다시 모국어를 알게 되었다.

★ 탐구과제

- 벨테브레(박연)와 하멜의 만남 장면을 상상해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보고, 당시 하멜의 입장에서 박연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야기해 보자.

그들이 제주라 부르고 우리가 켈파르트 섬(‘갤리션 켈파르트’라는 배가 1642년 경 동북쪽을 향해하다가 제주도를 처음 발견하고 이 사실을 동인도 회사에 보고했는데, 이후 이 배의 이름을 따서 ‘켈파르트’ 섬이라 불림.)이라고 부르는 이 섬은 앞서 말한 것처럼 위도 33도

32분에 위치해 있고 조선 본토의 남단으로부터 85~9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북쪽 해안에는 만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배가 들락날락하고 본토와의 왕래가 이루어졌다. 그 해안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섬에 접근하기란 매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암초가 있어서, 만약 날씨가 나빠 그 만을 놓쳐 버리면 닻을 내리고 안전하게 정박할 다른 곳이 없어서 일본으로 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섬을 빙 둘러서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는 절벽과 암초들이 많이 있다. 또 이 섬에는 사람도 많이 살고 있고 식량도 많이 생산해 낸다. 말과 소도 많은데 이것들을 매년 왕에게 공납하고 있다. 주민들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가난하며 본토인들에게 천대받고 있었다.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높은 산이 하나 있고, 나머지 산들은 민둥산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계곡들이 많이 있어서 그곳에서 쌀이 재배되고 있었다.

★ 탐구과제

- 위의 서술로 알 수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  
(당시 네덜란드인들의 꽤 정확했던 측량술, 한라산의 존재 등)
- 제주도민들이 본토인들에게 천대받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당시 제주도가 대부분 유배 장소로 쓰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왕은 벨테브레를 통해 ‘외국인을 국외로 내보내는 것은 이 나라 관습이 아니므로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며, 대신 너희들을 부양해주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왕은 우리더러 네덜란드 식으로 춤을 추게 하고 노래도 부르게 하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보이도록 했다. 왕은 나름대로 우리를 잘 대해 주었으며 일인당 포목 2필씩을 주어 이 나라 복식으로 옷을 지어 입게 했다. 그리고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다. 그 다음 날 훈련대장 호출을 받아 갔는데 그는 벨테브레의 통역을 통해 왕이 우리를 친위병으로 삼았다는 말을 전했다. 우리 매달 70캐티(말레이어의 ‘카티’에서 온 말로 1캐티는 약 600g(1근) 정도)에 상당하는 쌀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 각자에게 나무로 된 둥근 호패를 주었는데 거기에는 조선말로 우리들의 이름, 나이, 국적(네덜란드 사람), 왕을 위해 우리가 할 역할 등이 문자로 새겨져 있었고 그 위에 왕과 장군의 낙인이 찍혀 있었다.

☆ 관련 교과서 서술

고등학교 한국사(미래엔)

대단원 : III.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중단원 : 1. 조선의 건국과 통치 체제의 정비

소단원 : 02. 통치 체제의 정비

정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6조 직계제를 채택하였다. 또 종친과 외척의 정치 참여를 제한했으며, 사병을 없애 군사권을 장악하였다. 호패법을 실시하여 전국의 인구 동태를 파악하고, 양전 사업을 단행해 국가의 경제 기반도 안정시켰다.

★ 탐구과제

- 하멜 일행의 호패를 상상하여 그림으로 그려보자.
- 하멜 일행을 대했던 방법으로 보아 당시의 신분제 상 어떤 위치로 대하고 있는 것인지 이야기해 보자.  
(호패를 지급하고 군속으로 근무하게끔 하였고 역을 지도록 한 것으로 보아, 당시의 ‘양인’과 같은 대우를 한 것으로 보인다.)

**훈련도감에 대한 설명**

화승총 한 자루씩과 화약, 총알을 지급받았고 초하루와 보름 때마다 장군에게 와서 고개 숙여 충성을 표해야 한다고 명령받았다. 그들 사이에서는 봉록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게, 조정의 관리들이 왕에게 그러는 것처럼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것 같았다.

일 년에 6개월 동안 훈련대장과 조정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조정에 출근하고 왕을 수행한다. 군사들은 봄에 3개월, 가을에 3개월 훈련을 받는다. 매달 3번씩 사격 훈련과 그 밖의 전술 훈련을 하러 다녀온다. 전쟁 연습이 행해지면 세상의 모든 책임이 그들 어깨에 달려있는 듯 했다.

☆ 관련 교과서 서술

고등학교 한국사(미래엔)

대단원 : III.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중단원 : 2. 양 난과 조선 후기의 정치

소단원 : 02. 봉당 정치의 전개와 탕평책

정권을 잡은 서인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왜란 이후 최고 정치 기구로 떠오른 비변사를 장악하고, 이를 통해 정치를 주도하였다. 또 훈련도감을 비롯해 후금과의 관계 악화 속에 새로 설치된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등 중앙 군영의 병권을 장악하여 권력 유지를 위한 군사적 기반으로 삼았다.

★ 탐구과제

- 하멜 일행을 훈련도감에 소속시켜 훈련 받게 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당시 북벌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 화포의 조작법을 아는 하멜 일행을 훈련도감에 소속시켜 근무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재미있는 이야기) 압행어사의 활약**

포수의 부주의로 항상 돛대 앞에 놓여있는 화약상자에 불이 붙어 정크선 앞부분이 날아가 버리고 5명의 병사가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좌수사는 이 사고를 관찰사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 하였으나 일은 거꾸로 진전되었다. 당시 국왕(현종)은 암행어사로 하여금 전국의 곳곳을 돌며 동정을 살피게 했는데, 암행어사가 전라도 관찰사에게 이 일을 알렸고 관찰사는 곧 조정에서 신을 띄웠다. 왕의 명령으로 좌수사는 소환되어 정강이에 90대의 태형을 받고 종신유배 되었는데, 주된 죄목은 사실을 상관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처리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 탐구과제

- 암행어사에 대해 미리 조사해온 내용을 발표해 보고, 자신이 암행어사라면 어떤 죄목을 가장 엄격하게 다루었는지 토론해 보자.

조선의 군주제

조선 국왕의 권위는 그가 비록 청나라에 신하의 예를 갖추긴 하지만 조선에서는 절대적이었다. 그는 왕의 자문기관(의정부)에 복종하지 않고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 이 나라에 읍이나 마을, 섬 따위를 소유하고 있는 봉건영주는 없다. 양반들의 수입은 (가)소유지의 재산과 노비로부터 생긴다. 어떤 양반은 2천~3천 명에 달하는 노예(종)를 소유하고 있다. 어떤 섬이나 영지를 국왕으로부터 하사받는 이들도 있지만, 그들이 죽자마자 효력이 상실되어 국왕에게 귀속된다.

☆ 관련 교과서 서술

고등학교 한국사(미래엔)

대단원 : III.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중단원 : 3. 경제 정책과 경제생활의 변화

소단원 : 01. 토지제도와 수취 체제의 정비

조선의 토지제도는 과전법 체제로 운영되었다. 고려 말에 마련된 과전법은 경기 지방의 토지에 한해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였다. 과전은 받은 사람이 죽으면 국가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그 일부가 수신전, 홀양전이란 이름으로 세습되었다. 세습되는 토지가 늘어나면서 새로 관직에 임명된 관리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지자, 세조는 직전법을 실시해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였다.

★ 탐구과제

- 위 글의 (가)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조권)  
(‘읍이나 마을, 섬 따위를 소유하고 있는 봉건영주는 없다’라는 서술로 보아 ‘소유지의 재산’이 곧 소유지 자체가 아니라 ‘수조권’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조선의 행정

어전회의는 지위가 높고 낮은 고관들로 이루어져 있는 왕의 자문기관이다. 이들은 매일 왕궁에 등청하여 국왕에게 모든 사건을 보고한다. 이들은 왕에게 어떤 것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말이나 행동으로 왕을 보좌한다. 왕뿐 아니라 이들도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한 80세까지 재직할 수 있다. 조정의 다른 관직에서도 강등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또한 그러하다.

지방 관찰사의 재직 기간은 1년이다. 다른 지방 관속들의 임기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3년이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재직 중에 저지른 비행 때문에 임기 만료 이전에 쫓겨난다. 왕은 항상 전국에 암행어사를 두어 행정 전반에 걸친 상세한 정보를 입수한다. 따라서 많은 관리들이 사형이나 종신유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다.

### ☆ 관련 교과서 서술

고등학교 한국사(미래엔)

대단원 : III.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중단원 : 1. 조선의 건국과 통치 체제의 정비

소단원 : 02. 통치 체제의 정비

각 도에 파견된 관찰사는 도의 행정을 담당하며 관찰 지역 수령을 감찰하였다. 고려와 달리 모든 군현에 수령이 파견되었는데, 수령은 국왕의 대리인으로 행정·사법·군사권을 행사하였다. 반면,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되었다.

### ★ 탐구과제

- 관리가 비행을 저지른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떠한 비행들이 있었는지 조사해 보자.

## 조선 후기의 여성

1) 부인들은 집의 가장 안쪽에 사는데 그것은 통행인들이 쳐다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부인들은 자유롭게 나들이를 하지만 연회 석상에서는 남편들과 반대편 자리에 그들끼리만 앉는다.

- 주택에 관한 서술 중

2) 남자는 아내가 이미 몇 명의 자식을 낳은 뒤라 해도 내보내고 다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는 법이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남자는 먹여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 명의 첩을 둘 수 있다. 또 마음만 내키면 기생의 집에 갈 수도 있었으며 이로 인해 비난을 받지도 않는다. 정실부인 한 사람만이 집 안채에 살며 살림을 꾸려가고 다른 첩들은 다른 곳의 집에서 따로따로 산다. 양반이나 고관들은 대체로 두세 명의 아내를 한 집에 데리고 사는데 이들 중 한 명이 집안 살림을 꾸려 간다. 각각의 소실들은

자기 자신의 거처를 가지고 있으며 주인은 마음이 내킬 때 이곳을 방문한다. 이 나라에선 아내를 마치 여자 노예처럼 다루며, 사소한 일로 아내를 내쫓을 수 있다. 남편이 아이들을 맡고 싶지 않다면 쫓겨난 여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한다. 이 나라의 인구 밀도가 높은 것도 당연한 일이다.

- 결혼에 관한 서술 중

3) 부모의 장례를 치른 후 장남이 부모의 집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을 소유한다. 다른 재산, 토지 소유권 및 물건들은 다른 아들들과 분배한다. 아들이 있는 경우 딸들이 유산을 분배받았다는 얘기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다. 또한 부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이들은 단지 자기의 의류와 소지품 및 결혼식 때 가져왔던 물건들만 가질 수 있다.

- 장례에 관한 서술 중

☆ 관련 교과서 서술

고등학교 한국사(미래엔)

대단원 : Ⅲ.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중단원 : 4. 신분 질서와 생활 모습의 변화

소단원 : 03. 사회 제도와 생활 모습의 변화

가족 제도는 고려와 마찬가지로 부계와 모계가 함께 중시되었다. 일반적으로 재산은 자녀에게 고르게 상속되었고, 제사도 자녀들이 돌아가며 지내거나 그 책임을 분담하였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성리학적 생활 규범이 정착되면서 점차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재산 상속과 제사는 장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딸과 (장자가 아닌) 다른 아들은 점차 재산 상속과 제사에 대한 권리를 잃어갔다. 또한, 부계를 중심으로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면서,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혼인 형태는 일부일처제였으나, 첩을 들일 수 있어 실질적으로 일부일처제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부인과 첩은 엄격하게 구분되었으며, 첩의 자식인 서얼은 재산 상속과 제사 등에서도 차별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혼인을 하면 신랑이 상당 기간 신부 집에서 생활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혼인을 마친 후 신부가 곧장 신랑 집으로 가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고려와 달리 조선에서는 여성의 이혼과 재혼이 금지되었고, 여성의 정절을 중시해서 정부가 열녀를 표창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처럼 성리학적 윤리가 강조되면서 여성의 지위가 점차 낮아졌다.

★ 탐구과제

- 위의 글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에 대해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자.

## 조선의 교육

양반이나 부유층에서는 자식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킨다. 그들은 가정교사를 두어 자녀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게 한다. 이 나라에선 이 두 가지 교육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교육은 점잖게 실시된다. 아이들은 과거의 많은 현인들에 관해서, 또 그 현인들이 어떻게 지위와 명예를 얻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끊임없이 듣게 된다. 아이들은 거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독서를 한다. 이런 어린애들이 자기가 배운 책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보면 정말 경탄할만하다. (가)각 마을마다 그 마을을 빛낸 사람들에게 매년 제사 지내는 사당이란 채 있다. 이곳에는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옛 문서들이 소장되어 있다. 양반들은 거기에서 독서를 하기도 한다.

매년 각 지방의 두서너 도움에서는 과거 시험이 실시된다. 시험관이 도움을 방문하여 무술과 치안 부문에서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실력을 시험한다. 여기서 행정 권한을 부여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의 명단은 조정에 보고된다. 이렇게 해서 (나)매년 한 번 왕의 사신들이 전국에서 모인 후보자들의 실력을 시험해 본다. 이 시험에는 치안과 무술 분야에서 승진의 기회를 찾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전에 조정의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 및 현재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에게 국왕은 승진 증서를 수여한다. 이것은 그들이 매우 탐을 내는 서류이다. 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 많은 젊은 양반들이 늙어서 거지 신세가 되는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값비싼 기부금과 연회비용 등으로 재산을 다 날려 버리기 때문이다. 자식들의 공부를 위해 거액의 돈을 투자하는 부모도 많이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인 관직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의 자식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모에게는 기쁨이자 희생에 대한 보상이나 셈이다.

### ☆ 관련 교과서 서술

고등학교 한국사(미래엔)

대단원 : III.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중단원 : 1. 조선의 건국과 통치 체제의 정비

소단원 : 02. 통치 체제의 정비

조선은 유교적 소양과 능력을 갖춘 관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해 관직에 등용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였다. 과거 시험으로는 문과, 무과, 잡과가 실시되었는데, 고려와 달리 무과도 제도화되었다. (다)정기 시험인 식년시는 3년마다 실시되었지만, 수시로 특별 시험이 행해졌다. 과거 응시는 친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지만,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적 처지로 일반 백성이 과거에 합격하기는 쉽지 않았다.

### ★ 탐구과제

- (가)는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 (서원)

- (다)의 사실을 바탕으로,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모습에 대해 말해보자.  
(정기시험인 식년시는 3년마다 실시되었는데, 하멜이 머무르던 당시에는 매년 한 번 씩 특별 시험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조선의 문자

조선의 언어는 다른 나라의 언어와 다르다.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 데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우기가 매우 어렵다. 그들은 말을 상당히 빠르게 하는데 특히 고관들이나 학자들은 천천히 느리게 한다.

문자를 쓰는 데는 세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 첫 번째 것은 주로 쓰는 방식인데 중국이나 일본의 글자와 같다. 조정과 관계된 공식적인 국가 문서뿐만 아니라 모든 책들이 이런 식으로 인쇄된다. 두 번째 것은 네덜란드의 필기체처럼 매우 빨리 쓰는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는 고관이나 지방관들이 포고령을 쓰거나 청원서에 대한 권고를 덧붙일 때 쓰며 서로 편지를 쓸 때에도 사용한다. 일반 백성들은 이 문자를 잘 읽을 수가 없다. 세 번째 것은 (가)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문자로 배우기가 매우 쉽고, 어떤 사물이든지 쓸 수 있다. 전에 결코 들어 보지 못한 것도 표기할 수 있는, 더 쉽고 더 나은 문자 표기 방법이다. 그들은 이 글씨들을 붓으로 매우 능숙하게 빨리 쓴다.

#### ☆ 관련 교과서 서술

고등학교 한국사(미래엔)

대단원 : III.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중단원 : 5. 양반 문화의 발달과 문화의 새 경향

소단원 : 01. 민족 문화의 융성

훈민정음 창제는 조선 초에 이루어진 민족 문화의 최대 업적이었다. 훈민정음은 백성이 쉽게 익혀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정부는 훈민정음을 활용해 유교 윤리를 보급했고, 여러 분야의 서적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거나 편찬하였다. 또한, 서리들이 훈민정음을 배워 행정 실무에 이용하게 하고, 이들을 채용할 때 훈민정음 시험을 치르기도 하였다.

훈민정음 창제로 우리 민족은 고유 문자를 갖게 되었고, 문화 민족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었다.

#### ★ 탐구과제

- (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지 유추해보자. (훈민정음, 한글)

## 과연 정말일까? 믿거나 말거나!

### 1) 국왕의 행차에 대한 서술 중

국왕이 궁전 밖으로 외출할 때는 모든 귀족들이 그를 수행한다. 귀족들은 검은 비단으로 된 긴 옷을 입는데, 그 옷의 앞과 뒤에는 문장이나 그 밖의 다른 상징물이 수놓아져 있고, 그 옷 위에 붉은 띠를 맨다. 기병과 보병이 행렬 선두에 서서 가며, 이들은 가장 좋은 의복을 입고, 맑은 기를 세우고 있으며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한다. 그 뒤에 국왕의 시종들이 따라가는데 이 시종들은 서울의 가장 지체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종들의 가운데에 임금은 금으로 세공된 아름다운 작은 집 모양의 가마에 앉아 있다. 그 행렬은 매우 조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숨소리나 말발굽 소리도 들을 수 있다. 국왕 앞에는 그의 비서(승지)나 시종 중의 한 사람이 조그만 상자를 들고 행진하는데 이것은 백성들이 정부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았거나, 판사의 판결을 받지 못했거나, 부모나 친구 중에 누군가 부당하게 처벌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청원이 있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넣는 함이다. 이 탄원서는 창대 끝에 묶거나, 담에 걸거나 울타리 뒤에서 건네어져 시종 중 한 사람이 받아 이것을 그 상자 속에 넣는다. 국왕이 궁에 돌아오면 그 상자는 국왕에 제출되어 모든 청원이 국왕에 의해 처리된다. 그리고 왕은 최종 판결을 선포하며 그 결정은 반대 없이 당장 집행된다.

### ☆ 관련 교과서 서술

고등학교 한국사(미래엔)

대단원 : III.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중단원 : 4. 신분 질서와 생활 모습의 변화

소단원 : 03. 사회 제도와 생활 모습의 변화

지방에서는 각 도의 관찰사와 수령이 사법권을 행사하였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다른 관청이나 상부 관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 2) 형벌에 관한 서술 중

남편을 죽인 아내는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한 길가에 어깨까지 땅에 묻는다. 그녀 옆에는 나무 톱이 놓여 있는데,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양반을 제외하고 누구나 그 나무 톱으로 그녀가 죽을 때까지 한 번씩 목을 쳐야 한다. 그리고 그 살해 사건이 일어났던 도읍이나 그 인접 지역은 몇 년 동안 자체적인 지휘관을 가질 권리를 박탈당하며, 다른 도읍의 지휘관이나 양반의 통치를 받는다.

남편이 아내를 죽였을 때 그 이유가 간통이든 이와 비슷한 것이든 간에 그럴만한 이유가 증명될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 관련 교과서 서술

고등학교 한국사(미래엔)

대단원 : III.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중단원 : 4. 신분 질서와 생활 모습의 변화

소단원 : 03. 사회 제도와 생활 모습의 변화

형벌은 유교 윤리를 어긴 반역죄와 강상죄를 가장 무겁게 처벌하였다. 범인의 가족까지 함께 처벌하는 연좌제가 적용되었으며, 범죄가 발생한 고을의 호칭이 강등되고 수령이 파면되기도 하였다. 토지와 노비의 소유권 분쟁은 문건에 의한 증거를 기준으로 처리되었고, 상속 문제는 성리학 정착 이후 종법이 적용되었다.

★ 탐구과제

- 하멜은 왜 저렇게 썼을까?

(흥미를 위해 상상으로 썼을 경우, 인도나 마카오 등 다른 곳에서의 기억과 혼용되었을 경우 등 여러 가지를 상상해볼 수 있다.)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

1) 조선의 인쇄에 관한 서술 중

사본이나 목판을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분실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 도시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 달력이나 이와 비슷한 책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그들이 달력을 만들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목판을 가지고 인쇄하며 책, 종이 양쪽에 각각 다른 목판을 사용한다.

☆ 관련 교과서 서술

고등학교 한국사(미래엔)

대단원 : III.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중단원 : 5. 양반 문화의 발달과 문화의 새 경향

소단원 : 01. 민족 문화의 융성

천문학은 태조 때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만들고 이를 돌에 새겼으며, 세종 때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한 “칠정산”을 편찬하였다.

\*칠정산 : 천체의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서술한 역법서로, 원의 수시력과 서역의 회회력을 참고로 편찬되었다.

## 2) 조공에 관한 서술 중

8월에 만주(청나라) 특사가 매년 받아 가는 조공을 받아 가려고 왔다. … (후략)

### ☆ 관련 사실에 대한 서술

공물은 중국에서 가지러 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보내는 것이다. … 1년마다 또는 반년마다 북경으로 공물을 보냈는데 그 때 상인들이 많이 따라갔기 때문에 보낸 공물의 양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겨 왔다.

- 로스, 『조선사』 중에서

### ★ 탐구과제

- 하멜의 서술 중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찾아, 근거를 대며 비판해 보자.

## III. 맺음말

역사 속 인물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특정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인물의 행위에 대한 과정을 배우며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행위의 의도, 전개 과정, 결과 등을 탐구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이를 ‘행위결정분석모형’을 사용하는 방법이라 하는데, 특정 인물이 어떠한 상황에서 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추론하고, 그것이 초래한 결과가 역사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역사 속에서 인간 행위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다음으로, 인물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정신세계, 또는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인물을 통한 시대 이해, 인물을 통한 문화 이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인물이 생각한 것, 고민한 것, 느낀 것들에 기초하여 당시 비슷한 조건에 있었던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사람들의 사고와 행위를 촉발했던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한철호 외(2013). **고등학교 한국사**. (주)미래엔.
- 조한욱 외(2014). **고등학교 세계사**. 비상교육.
- 김덕수 외(2011). **고등학교 세계사**. 천재교육.
- 헨드릭 하멜 지음(2013). 김태진 옮김, **하멜표류기**. 서해문집.
- 김규성(2004). **한국 천주교회의 기원에 대한 제 학설에 관한 연구**. 역사신학, 인천가톨릭대학교.
- 김문경(2001). **신라인의 해외활동과 신라방**. 한국사시민강좌 28. 일조각.
- 이광규(2010). **한국 이민 전사(前史)의 시기와 성격**. 재외한인연구 제21호. 재외한인학회.
- 박기현(2008). **네덜란드인들이 조선 초기 선교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고찰 : 하멜의 기록에 나타난 벨테브레를 중심으로**. 안양대학교.
- 김문식(2007).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네덜란드 이해**. 사학지 제39집. 단국대학교 사학회. 2007.
- 김동전(2003). **하멜의 제주 표착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현재성**. 동아시아연구논총. Vol.14.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 박용진(2014). **중세 말 유럽인들의 아시아에 대한 이미지와 그 변화**. 서양중세사연구. 제33호. 한국서양중세사학회.
- 지명숙(2003). **하멜 일행의 한국 체류, 적응 및 이해**. 동방학지 제122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전근대 우리 땅을 밟은 외국인들인 벨테브레와 하멜을 역사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벨테브레와 하멜은 모두 네덜란드 사람이며, 조선에 먼저 표착한 이는 벨테브레였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소속의 선원이었던 벨테브레는 1627년 제주도에 상륙하였고, 이후 귀국하지 않고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에 귀화하여 조선에 귀화한 최초의 서양인이 되었다. 박연은 당시 북벌정책을 실시하고 있던 조선에서 훈련도감에 근무하며 조선의 병기개발 및 개량에 커다란 역할을 다하였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의 무역선 포수였던 하멜은 1653년 조선에 표류하여 13년 동안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했고, 여러 지역으로 끌려 다니면서 당시 조선의 풍물과 풍속에 대한 사정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다. 교류사 학습은 세계사의 종합적인 이해에도 도움을 준다. 학생들은 서양사와 동아시아사, 한국사를 구분해서 배우기 때문에 세계 역사의 종합적인 흐름이나 시대별 서양과 동양의 모습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힘들 수 있다. 전근대의 동서교류와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 학습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서양과 동양의 역사를 세계 역사의 흐름 안에서 같이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주제어** : 벨테브레, 하멜, 역사 수업, 동서 교류, 학생들